

중동전쟁에 따른 을(Z)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유업계 및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 체결

- 정유업계 상표주유소 혼합판매 비율 확대 및 사후정산제 폐지 등 상생협약 체결
- 플라스틱 업계 납품대금 조정 및 조기지급, 납품기일 연장 등 상생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4.9.(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유업계 및 플라스틱 가공업계와 각각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정유업계 및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 체결식 개요 >

- ▶ (일시 및 장소) '26. 4. 9.(목) 10:00~10:50, 국회 본관(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 * 정유업계 상생협약과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을 연이어 체결

< 정유업계 상생협약 >

- ▶ (참석자) 국회, 정부(공정위 위원장 등), 한국주유소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정유사*
- *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S-OIL, GS칼텍스

<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 >

- ▶ (참석자) 국회, 정부(공정위 위원장 등), 한국프라스틱공업협회, 한국프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수요 대·중견기업 9개사*
- * 씨제이제일제당(주), 대상주식회사, (주)농심, 롯데칠성음료(주), (주)LG생활건강, (주)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GS리테일

< 정유업계 상생협약 >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정유사와 상표주유소 간 전속계약*으로 인해 시장 내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공급계약이 사후정산** 방식으로 운영되어 주유소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공급받는 계약

**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MOPS(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월 말에 확정된 가격으로 정산하는 방식

정유업계 상생협약을 통해 정유사는 그동안 지속해 온 전속거래계약과 사후정산 등 거래 관행에서 탈피하여,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는 혼합판매로 전환하고,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을 폐지하여 일일 판매기준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여 공시하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논의를 통해 도출된 정유업계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 사항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 반영함으로써,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 >

한편,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들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재료 비용 인상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수요 대기업을 상대로 한 납품대금에 비용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은 특히 납품대금과 관련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협약에 참여한 수요 대기업들은 ▲원재료 비용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대금 조정, ▲납품대금 조기 지급, ▲원재료 수급의 어려움에 따른 납품기일 연장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공정위 등 정부는 이번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에 참여하여 이를 잘 준수한 우수 기업에 대하여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협약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 <붙임> 1. 정유업계 상생협약 공정거래위원장 말씀자료
2.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 공정거래위원장 말씀자료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민지 (044-200-4945)
	기업거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대준 (044-200-4946)
	기업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구태모 (044-200-4960)
	유통대리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준영 (044-200-4965)
	시장감시국	책임자	과 장	석동수 (044-200-4514)
	제조업감시과	담당자	사무관	최유빈 (044-200-4518)



정유업계 상생협약 체결식
2026. 4. 9.(목) 10:00



공정거래위원회

말씀자료

- 일 시 : 2026. 4. 9.(목) 10:00
- 장 소 : 국회 본관(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 병 기

먼저,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정유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업계와 정부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신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관련 업계 및 산업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공정위 역시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 관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전속거래계약과 사후정산제 등
오랜 기간 정유업계에서 이루어져 온 관행들이
이번 상생협약 체결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혼합판매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투명한 가격 결정을 통해
주유소가 더욱 자유롭게 소비자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등
주체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기를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정유사 주유소 간 거래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2020년부터 석유유통업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하고 운영중이며,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 결과 도출된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사항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도 산업부,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정유업계 상생협력과 유가 안정을 위한 정책이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 체결식
2026. 4. 9.(목) 10:30



공정거래위원회

말씀자료

- 일 시 : 2026. 4. 9.(목) 10:30
- 장 소 : 국회 본관(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 병 기

최근 국제정세의 불안정 속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 등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상생협약 체결의 장을 마련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관련 업계 및 관계 부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공정위도 납품대금 연동제의 주무부처로서,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원활한 납품대금 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상생협약 체결을 계기로,
정부, 국회, 관련 업계가 한 팀이 되어
납품대금과 관련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요 대기업들이
중동전쟁에 따른 원재료 상승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납품대금을 조정하고,
협력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납품기일 연장 등에
적극 나선 것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업계 전반에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공정위도 중동전쟁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상생협력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과 관련한 상생에 적극 나서는
수요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업체 대상 홍보 및 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 문화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